Nature, Our Future!

오대산 국립공원

ODAESAN NATIONAL PARK

12.오대산사고

오대산의 열 두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 기록문화와 오대산사고

기록문화의 꽃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우리는 자랑스러운 기록문화를 보유한 민족입니다. 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과 조선 왕조의 행사를 기록한 〈의궤〉는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을 말해주는 귀한 문화유산입니다.

조선시대의 백과사전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의 첫 번째 왕인 태조부터 25대 철종에 이르는 472년(1392~1863)간의 일들을 역사의 연대순으로 기록한 서적으로, 조선왕조의 공식 역사서입니다. 조선시대 기록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며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나 외교, 군사, 문화, 생활사의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내용이 담겨 있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상세하면서도 포괄적인 역사기록물의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편찬 과정

실록(實錄)은 당대에 열람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후세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있기에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이 돌아가신 후에 실록청이 구성되고 사관이 작성한 사초들을 모아서 실록을 편찬하는데 사초와 함께 실록 편찬에 활용한 자료가 바로 시정기(時政記)입니다. 시정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각 지방 관청의 업무일지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왕의 비서실에서 쓴 〈승정원일기〉와 국무회의록이라고 할 수 있는 〈비변사등록〉, 또 자연재해와 기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관상감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러한 시정기의 기록을 참고로 쓰였기 때문에 내용이 다양합니다.

실록 편찬과 봉안 과정

1단계 실록청 설치	시정기,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기타문서와 사초를 수집한다.
2단계 초초의 작성	수집한 각종 사초를 바탕으로 초초를 작성한다.
3단계 중초의 작성	초초를 수정, 보완, 윤문, 교정하여 중초를 작성한다.
4단계 정초의 작성	중초본을 수정, 보완하여 정초를 완성하고 인쇄한다.
5단계 실록의 봉안	인쇄된 실록을 각 사고에 봉안한다.
6단계 세초 및 세초연	초초, 중초 등 편찬에 이용된 각종 사초들을 물에 씻고, 세초연을 열어 편찬에 참여한 관리들을 격려한다.

왕실 행사의 생생 기록

의궤 (儀軌)

조선왕실 〈의궤〉는 왕실의 주요 의식과 행사의 준비 과정 등을 상세하게 글로 적고 그림으로 그려 만든 문서입니다. 이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거행된 여러 의례의 전모를 소상하게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고자, 도감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례의 본보기 서책입니다. 실록 등에도 의례의 기록이 남아 있지만, 내용이 방대하고 소상하며 행차 모습 등 그림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의궤〉로 제작하였습니다. 왕실의 혼사, 장례, 잔치, 건축, 편찬 등 반복하는 일을 기록하여 유사한 행사를 치를 때에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의궤〉의 주요 내용들 중 제일 많은 것이 장례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까닭은 유교 문화에서는 왕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치르는 장례의식을 매우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출생부터 혼례식, 또는 외국 사신의 영접이나 어진의 제작, 궁궐의 건축 그리고 악기를 만드는 일 등 다양한 왕실 행사를 의궤의 기록으로 담았기 때문에 〈의궤〉를 보면 마치 조선 왕실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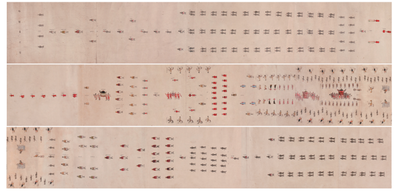


어람용 의궤 / 분상용 의궤(월정사 성보박물관)

이 책에는 마치 우리가 그 시대 그 현장에 있는 듯한 시각적인 자료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의궤〉를 이용해서 많은 행사들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궤는 철저한 기록 정신의 산물로서 예(禮)를 숭상하는 유교문화권의 핵심 요소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국가의 통치 철학 및 운영체계를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의궤(儀軌)〉는 조선이 건국된 초기부터 제작되었으나 임진왜란으로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현재 전하는 〈의궤〉는 1601년에 만들어진 의인왕후의 장례에 대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며, 주로 19세기에 제작된 의궤가 많습니다. 〈의궤〉는 왕이 보도록 하기 위해 제작한 어람용(御覽用)과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하기 위한 분상용(分上用)으로 구분되어 5~9부 내외가 제작되었으며 어람용은 분상용보다 필사, 재료, 장정 등에서 그 수준이 월등합니다.

현장 기록화, 반차도 (班次圖)

'반차(班次)'란 '나누어진 소임에 따라 차례로 줄을 지어서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행사하는 모습은 물론 역할에 따른 사람들의 위치까지 그린 그림입니다. 행사 전에 미리 그려 물품과 사람들을 배치해봄으로써 행사 당일에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례반차도권(국립고궁박물관)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253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2
033) 332-6417

FSC PRINTED WITH SOY INK

환경부 |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조선시대 전란 속

사고의 변화

사고(史庫)가 산으로 간 까닭은?

사고(史庫)란 역사 책과 자료를 보관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실록을 사고에 보관하던 시기는 고려시대부터였는데 특히 고려 후기부터는 실록의 완전한 소실을 막기 위해 수도인 개성에 내사고(內使庫)를, 지방에는 외사고(外使庫)를 두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그 방식은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전국 4곳에 사고를 분산하여 실록을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한양의 춘추관사고와 충주사고, 성주사고를 임진왜란으로 모두 잃었고, 마지막 남은 전주사고는 용감한 백성 100여 명과 손홍록, 안의와 같은 유생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에 내장산으로 옮겨져 다행히 태조실록부터 명종실록까지 원본 한 질은 남았습니다. 이후 임진왜란이 끝나고 국방상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강화도로 옮겨져 재간행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을 겪고 나자 사고를 산간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조선왕조실록 5부를 제작하여 한양의 춘추관과 강화도 정족산, 경상도 태백산, 평안도 묘향산, 강원도 오대산에 보관했습니다. 묘향산의 사고는 후금(청나라)의 침략을 우려해서 전라도 무주의 적상산으로 옮겼습니다.



김홍도가 그린 오대산사고(금강사군첩)

사고를 큰 절이 있는 산에 설치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이 높아 비밀스럽게 보관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오대산사고는 월정사, 태백산사고는 각화사, 적상산사고는 안국사, 정족산사고는 전등사처럼 인근에 사고를 관리하는 수호사찰을 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고를 잘 관리하고 지키는 사찰에 대해 나라에서는 혜택을 주는 현명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이동경로

1392	춘추관	충주사고			
1445	춘추관	충주사고	성주사고	전주사고	
1592~1603	임진왜란 소실	임진왜란 소실	임진왜란 소실	전주→해주→강화도 이동	
1606	춘추관 (신인본)	태백산사고 (신인본)	묘향산사고 (신인본)	마니산사고 (원본)	오대산사고 (교정본)
1624	이괄의 난 소실				
1633			적상산사고		
1678				정족산사고	
1911		조선총독부	창경궁 장서각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1913					동경제국대학
1923					관동대지진 대부분 소실
1929		경성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	
1932					27책 경성제국대학 반환
1946		서울대학교 규장각	구왕궁 사무성	서울대학교 규장각	
1950~1953			북한 김일성대학		
1985		국가기록원 부산지원			
2006					47책 서울대학교 반환
2016					74책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다사다난한 역사를 지닌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교정본의 의미


일제강점기 시대 사각

오대산사고본 실록이 다른 사고의 조선 왕조실록과 다른 점은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교정을 본 '교정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중 임진왜란 직후 다시 펴낸 성종실록과 중종실록은 군데군데 붉은 글씨(朱書)와 검은 글씨(墨書)로 수정, 삭제 등을 지시하는 교정부호가 남아 있는 교정본입니다. 오대산사고본에 표기된 교정 내용은 완성본인 다른 사고본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완성본도 아닌 교정본을 책으로 만들어 사고에 분산한 이유는 실록을 다시 펴내던 시기가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록 재간행 당시 4부 중 3부는 정본으로 인쇄되었으나 1부는 최종 교정쇄본을 장정(裝幀)하여 정본을 대신하도록 하였는데, 이 교정쇄본이 오대산사고에 보관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정본 실록들은 교정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교정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 수 있는, 실록의 편찬 과정과 한자 자형을 연구하는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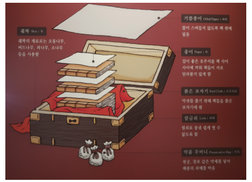

교정본(월정사 성보박물관)

자연과 정성이 지켜낸 오대산사고본


건물 1층 바닥이 떠 있는 오대산사고

오대산사고는 국가와 관련된 주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고(史庫) 주위에 돌담을 쌓아 이곳이 성역임을 강조하였으며 이 돌담은 산짐승에 의한 피해나 사소한 화재로부터 사고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대산사고가 있는 자리는 풍수지리학적으로 연화반개형(蓮花半開形) 명당이라 해서 연꽃이 반쯤 펴서 연꽃잎이 씨방을 감싸 안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분만 아니라 바람, 물, 불의 피해가 없는 길지라 하니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은 지형이 높고 산안개가 심한 반면 서적은 습기에 약합니다. 따라서 사고를 지상에서 띄워 건축함으로써 바람이 잘 통하게 하고, 창문도 안팎으로 열리게 하여 통풍은 물론 햇빛으로부터 서적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제습에 좋은 오동나무 상자에 책 한 권씩을 넣을 때마다 종이 한 장을 올린 후


오동나무 상자 (창포, 천궁), 출처: 월정사 성보박물관

마지막엔 기름 먹인 종이를 덮고 보자기로 잘 싼 후 창포와 천궁을 같이 넣어 방충, 방습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곰팡이나 좀을 우려해서 왕명을 받은 사관들이 3년을 주기로 실록을 바람과 햇볕에 말리는 포쇄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관은 글도 잘 써야하고 청렴해야 하지만 건강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의 곁으로 돌아온 오대산사고본


반환된 오대산사고본(국립고궁박물관)

1910년 국권 상실 후, 이듬해인 1911년 3월 조선총독부에서 오대산사고 본을 강제로 압수하였고, 1913년경에 일제에 의해 동경제국대학 도서관에 기증하는 방식으로 무단 반출되었습니다.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대부분이 소실되었고, 화를 면한 오대산사고본 실록 중 27책이 1932년 5월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된 이후 서울대학교 규장각으로 이어졌습니다.

1973년 오대산사고본 실록 27책이 국보로 지정된 후 일본에 남아있던 실록 47책이 2006년에 환수되어 2007년 국보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에 환수된 1책이 2019년 국보로 추가 지정되어, 총 실록 75책이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오대산사고본 의궤의 경우 1922년 조선왕조실록과 마찬가지로 기증의 형태로 무단 반출되었습니다. 2006년 헤문스님과 월정사가 중심이 된 환수위원회가 출범하였고, 2011년 각고의 노력 끝에 오대산사고본 의궤 81책을 포함한 81종 167책이 환수되었습니다.

QR로 보는 오대산국립공원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실의궤 '고국 품으로'

참고문헌

《김문식 외 1명, 2005, 조선 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조계영 외 4명, 2014, 조선 기록문화의 역사와 구조 1, 소명출판》

《황재문 외 4명, 2014, 조선 기록문화의 역사와 구조 2, 소명출판》

제작 담당

자연환경해설사 이은주

감수

국립국어원 교수 김주미

유네스코 세계

한국의 유산들 (2021년 등재 기준)

14 한국의 세계유산

1995
해인사장경판전
종묘
석굴암, 불국사

1997
창덕궁
수원화성

2000
강화 고인돌 유적
경주역사유적

2007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2009
조선왕릉

2010
하회와 양동마을

2014
남한산성

2015
백제역사 유적지구

2018
산사,한국의 산지승원

2019
한국의 서원

21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2001
종묘 및 제례악

2003
판소리

2005
강릉단오제

2009
강강술래 / 남사당
영산재 / 처용무
제주 칠머리 당영등굿

2010
가곡 / 대목장
매사냥

2011
줄타기 / 택견
한산모시짜기

2012
아리랑

2013
김장문화

2014
농악

2015
줄다리기

2016
제주해녀문화

2018
한국의 전통 레슬링

2020
연등회

16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1997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해례본)

2001
불조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2007
조선왕조 의궤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2009
동의보감

2011
일성록/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2013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2015
한국의 유교책판/
KBS특별판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2017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
조선통신사 기록물